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 대조 연구

- ‘-(으)ㄴ’, ‘-기’ 명사절을 중심으로 -

劉景玉* · 윤화영** · 박덕유***

|| 차례 ||

- I. 서론
- II.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 특징
- III.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 대조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언어 대조의 입장에서 한국어 ‘-(으)ㄴ’, ‘-기’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 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의 구성방식과 통사적 측면에서 양국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학습자가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으)ㄴ’과 ‘-기’에 의한 명사절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한국어 명사절과 중국어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특징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 명사절과 중국어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제약에 대한 대조 분석을 하였다. 결론에서는 대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공통점으로 첫째,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모두 설명적인 어휘, ‘-이다(是)’류 어휘인 모문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다. 둘째,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모두 감각, 인

* 주저자: (중국)집미대학교(集美大學) 한국어과 전임강사

** 공동저자: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지 혹은 심리 동사나 발견형, 설명형, 요구형인 모문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다. 차이점으로 첫째,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명사절의 표지 ‘-(으)ㄴ’과 ‘-기’가 존재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명사절 표지가 없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은 대응 불일치한 경우가 있다. 넷째,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공기하는 한국어 모문 서술어의 유형과 중국어 모문 서술어의 유형에 많은 차이가 있다. 다섯째, 한국어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ㄴ’과 ‘-기’의 의미 특성과 모문 서술어에 따라 시상적 제약을 받는 반면에, 중국어 명사절은 주술구가 수행하는 기능과 모문 서술어가 이끄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 시상적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으)ㄴ’, ‘-기’ 명사절 교수·학습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으)ㄴ’ 명사절, ‘-기’ 명사절, 구성 방식, 통사적 제약, 대조 연구

1. 서론

본고는 한국어 ‘-(으)ㄴ’, ‘-기’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대조를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의 한 가지는 학습자의 모국어이다. 따라서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고 이를 교수·학습에 이용하면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허용·김선정, 2019: 1). 서로 다른 언어 계통에 속하는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중국어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가 자주 회피하는 ‘-(으)ㄴ’, ‘-기’ 명사절¹⁾을 선정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모국어의 간접 영향을 가급적 줄이고, 나아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명사절의 교수·학습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최근에 한국어 명사절에 대하여 대상 언어 간의 대조 분석을 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무라 나오키(2015)에서는 의미적으로 동일한 한국어와 일본어 보문동사를 대상으로 각 언어에서 취하는 명사절의 목록을 구축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조기현(2017)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비정형 명사절에 대하여 상위문 서술어동사와 비정형 명사절이 보충어절로 사용되는 경우의 공기관계와 두 언어의 비정형 명사절 구문의 주어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에 대한 연구는 동연(2016), 文有美(2016), 왕레이한(2018), 동초(2021) 등이 있다. 동연(2016)에서는 중국어로 한국어 내포문을 번역하였을 때 그대로 대응되는 것과 아닌 것 사이에 어떤 규칙이나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중국어 대응문장의 특성만을 분석하였고 문법적인 대응을 분석하지 않았다. 文有美(2016)에서는 예문을 통해서 중국어 주어절과 한국어 대응 양상을 고찰하였고, 왕레이한(2018)에서는 한국어 명사절과 중국어 명사절의 유형과 기능을 살펴본 후에 해당되는 문장성분, 명사절의 자립성, 주절 용언 측면에서 한·중 명사절의 기능을 대조하였

1) 김혜원·김은호(2018: 58)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술 텍스트에서 ‘-(으)ㄴ’, ‘-기’ 명사절을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학습자들의 텍스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으)ㄴ’, ‘-기’ 명사형 어미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관형사형 어미+것’의 형태를 사용한 문장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 동초(2021)에서는 한·중 병렬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명사절 내포문의 중국어 대응 관계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의 대조 연구는 대체로 일반적인 대응 양상과 기능만을 분석하였고 통사적인 대조 연구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학습자가 한국어 명사절 사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언어 간의 대응 양상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측면에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도 이해해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의 구성 방식 및 통사적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것이다.

II.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 특징

1. 한국어 ‘-(으)ㄴ’, ‘-기’ 명사절의 특징

한국어 명사절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많으며 명사절 내포문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다(유현경, 2018: 39).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사용하는 데에 자주 회피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으)ㄴ’, ‘-기’에 의한 전형적인 명사절을 대상으로 고찰할 것이다²⁾. 명사형

2) 김혜원·김은호(2018)에 따라 학습자들이 ‘-(으)ㄴ’, ‘-기’ 명사절 보다 ‘관형사형어미+것’ 구성을 더 익숙하고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형사형어미+것’ 구성은 명사절로 인정하는 학자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고영근·구본관(2011), 유현경(2018) 등 선행 연구에 따라 ‘관형사형어미+것’이 포함된 문장은 구조 측면에서 관형사절 내포문으로 볼 수 있고 의미 기능 측면에서 명사절

어미 ‘-(으)ㄴ’과 ‘-기’는 모두 명사절을 형성함으로써 문장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지만, 서로 다른 의미와 결합 서술어를 가진다. 명사형 어미의 의미적 특성과 모문 서술어의 의미가 선택적으로 호응함에도 불구하고 시상 형태소의 결합 제약이 명사형 어미와 모문 서술어의 의미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의미적 측면과 모문 서술어와 시상적 제약을 갖는 통사적 측면의 특징을 밝히는 것은 학습자가 명사절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권재일(1981,1982), 홍종선(1983), 우형식(1987), 정주리(2006) 등 많은 연구자들이 명사형 어미 ‘-(으)ㄴ’과 ‘-기’의 의미 특성을 기술하였으며 분석된 의미는 학자마다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에 본고에서 ‘-(으)ㄴ’과 ‘-기’의 의미를 정주리(2006)에서 선행 연구를 정리하여 분류한 ‘시간적 관점’, ‘사태의 자질’, ‘동작의 성격’ 등 3가지 유형을 참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으)ㄴ’은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한 행위나 사태를 의미한다면 ‘-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결정하지 않은 사태를 나타낸다. 즉, ‘-(으)ㄴ’은 ‘과거’, ‘완료’, ‘결정’, ‘사실’을, ‘-기’는 ‘미래’, ‘과정’, ‘미결정’, ‘예측’의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으)ㄴ’, ‘-기’가 갖는 사태의 자질에서 보면, ‘-(으)ㄴ’은 개별적 사태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는 일반적 사태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으)ㄴ’과 ‘-기’가 표현하는 행위나 동작의 성격을 보면, ‘-(으)ㄴ’은 상태 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하며 동사의 상태나 정지를 많이 나타낸다면 ‘-기’는 상대적으로 동작의 동작성을 표현하며 동작성이 강한 동사들과 결합한다. 이에 ‘-(으)ㄴ’과 ‘-기’가 가진 기본적 의미를

내포문으로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충돌로 인해 ‘관형사형어미+것’이 포함된 문장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기술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명사형 어미 ‘-(으)ㄴ’과 ‘-기’의 의미적 특성

	-(으)ㄴ	-기
시상적	과거, 완료, 결정, 사실	미래, 과정, 미결정, 예측
사태 자질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
동작 성격	상태적	동작적

- (1)³⁾ 가. 철수가 여자 친구와 헤어졌음이 확실하다.(과거, 완료, 사실)
 나. 수지는 자기가 꽃병을 깨음을 시인했다. (개별적, 구체적)
 다. 이는 경기 전망이 극도로 혼란스러움을 반영한다. (상태적)

(1가)는 철수가 여자 친구와 헤어진다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났으며, 완료된 기정적인 행위이다. (1나)는 수지가 꽃병을 깨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1다)는 경제 상태에 대한 반영이다. 따라서 예문 (1)을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으)ㄴ’에 의한 명사절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과거에 발생한 일을 나타낸다. 한편, 객관적인 현상과 확정된 사실이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으)ㄴ’에 의한 명사절은 ‘과거’, ‘완료’, ‘사실’, ‘개별적’, ‘상태적’ 등의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다.

- (2) 가. 엄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미래, 기대, 동작성)
 나.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다. (예측)

3) 본고의 예문은 기존 연구와 학습자의 말뭉치에서 나온 예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전문가 2명과 중국어 전문가 2명의 검토를 거쳐 기술하였다.

다. 아이들은 모두 사탕을 먹기 좋아한다. (일반적)

(2가)에서는 ‘기다리다’를 통해서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미 ‘-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돌아오다’는 동작성이 강한 동사이므로 ‘돌아오기’는 ‘미래’, ‘동작성’의 동사 의미로 포착된다. (2나)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지만 반드시 실수하는 것이 아니며, 사건에 대한 예측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미 ‘-기’는 예측,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다)에서는 사탕을 먹기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의 일반적인 습관으로 특정한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미 ‘-기’는 ‘일반화 행위’를 나타낸다.

1) 모문 서술어 특징

‘-(으)ㄴ’과 ‘-기’에 의한 명사절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하여⁴⁾, ‘-(으)ㄴ’과 ‘-기’에 의한 명사절의 통사적 특징 가운데 주로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의 유형, 시상법의 제약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으)ㄴ’과 ‘-기’ 명사절의 모문 서술어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권재일(1981,1982), 우형식(1987), 송창선(1990) 등에서는 ‘-(으)ㄴ’ 명사화 내포문과 ‘-기’ 명사화 내포문이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할 때 뒤에 각각 결합하는 술어동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김일환·

4) 필자가 수집한 중국 대학 1, 2, 3학년 학생이 작성한 기말고사 작문 233편, 24,294 어절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주로 범한 오류 유형은 명사절 어미 결여의 오류, 명사절 어미와 모문 서술어의 호응 오류, 시제에 관한 오류, 문장 성분의 호응 오류 등임을 발견하였다.

박종원(2003)에서는 세종 균형 코퍼스를 이용하여 빈도가 2번 이상 나타난 서술어들을 추출하였고, 기준성(2003)에서는 ‘-(으)ㄴ’, ‘-기’가 쓰인 경우에 해당하는 1,000개의 구절을 이용하여 5번 이상 나타난 서술어들을 추출했을 뿐만 아니라 의미자질로 묶어서 해당 의미 유형에 속하는 서술어들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명사형 어미 ‘-(으)ㄴ’, ‘-기’와 공기하는 서술어 중, 권재일(1981,1982), 우형식(1987), 송창선(1990), 김일환·박종원(2003), 기준성(2003) 등 선행 연구에서 단회성이 아닌 2편 이상에서 다루어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난 서술어에 한정하여 연구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표 3>과 같다.⁵⁾

<표 2> ‘-(으)ㄴ’과 공기하는 모문 서술어의 유형

주6) 어 절	판단형	분명하다, 확인되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발견형	드러나다, 밝혀지다, 입증되다, 나타나다, 느껴지다
	인지형	느껴지다
	전달형	알려지다
	‘-이다’	사실이다, 유감이다
목7) 적 어 절	판단형	의미하다, 뜻하다, 지적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발견형	밝히다, 시사하다, 발견하다, 나타내다, 짐작하다
	인지형	알다, 느끼다, 깨닫다, 직감하다, 실감하다, 인식하다, 잇다
	감각형	보다, 보이다
	전달형	말하다, 알리다

5) 모문 서술어에 대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3장 2절에서 예문을 통해 한·중 명사절의 모문 서술어 제약을 대조하기로 한다.

6)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주어절이라 칭한다.

〈표 3〉 ‘-기’와 공기하는 모문 서술어의 유형

주 어 절	인지형	쉽다, 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좋다, 싫다, 무섭다, 바쁘다, 민망하다, 아깝다
	개연성	쉽다, 일쑤이다, 십상이다
목 적 어 절	소망형	바라다, 원하다, 기대하다, 희망하다, 기원하다, 고대하다, 위하다, 기다리다
	요구형	권하다, 요구하다, 당부하다, 거부하다
	감정형	좋아하다, 싫어하다, 꺼리다
	시종형	시작하다

2) 시상적 특징

우형식(1987)에서는 ‘-(으)ㄴ’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았/었’에 시상제약이 없으나, 미래 시제 ‘-겠’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송창선(1990)에서는 시상적 제약은 명사형 어미와 모문 서술어의 특성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며, ‘-(으)ㄴ’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시상제약이 없지만 미래 시제 ‘-겠-’은 결합하는 데 약간의 제약이 있음을 밝혔다.

(3) 가. 그가 거짓말을 (함, 했음, *하겠음)이 드러났다.

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음, 도와주었음, *도와주겠음)을 느낄 수 있다. 송창선(1990:221)

다. 그가 기차를 (탐, 탔음, *타겠음)이 확실하다.

라. 그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음, 않았음, 았겠음)을 강조했다.

송창선(1990:221)

예문(3가, 나, 다)처럼 인지 표현과 발견 표현인 모문 서술어 ‘드러나다, 알다, 확실하다’의 확정성, 결과성의 특성과 ‘-(으)ㄴ’ 고유한 의미

7)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목적어절이라 칭한다.

특성 때문에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미확인이나 추측의 의미기능이 있는 미래 시제 ‘-겠-’과 결합할 수 없다. 한편 예문(3라)에서는 전달 표현인 모문 서술어 ‘강조하다, 말하다, 주장하다’가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는 일에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았/었-, -겠-’과 모두 결합할 수 있다.

(4) 가. 이 책은 (읽기, *읽었기, *읽겠기)가 쉽다.

나. 철수가 밥을 (먹기, 먹었기, *먹겠기) 쉽다. 송창선(1990:221)

다. 엄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 돌아왔기, *돌아오겠기)를 바란다.

라. 비가 (오기, *왔기, *오겠기)를 시작했다.

마. 아이들은 모두 사탕을 (먹기, *먹었기, *먹겠기) 좋아한다.

우형식(1987), 송창선(1990)에 따르면 예문 (4가)처럼 ‘-기’ 명사절은 주절의 기능을 할 때 ‘-았-, -겠-’ 모두 제약되는 것이 보통인데 (4나)처럼 ‘-기가 쉽다’가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는 ‘-았-’이 허용된다. 한편, ‘-기’ 명사절은 목적절의 기능을 할 때는 (4다)처럼 꼭 이루어지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소망표현의 모문 서술어 ‘기대하다, 바라다, 원하다 등’은 ‘-았-’을 허용하지만, (4라, 4마)처럼 시종이나 감정 표현의 서술어 상위문은 ‘-았-, -겠-’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명사절의 시상법 제약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명사절의 시상법 제약

- (으)ㄴ	-기
일반 서술어: 과거(○), 미래(×) 전달표현 서술어: 과거(○), 미래(○)	일반 서술어: 과거(×), 미래(×) 개연성 서술어: 과거(○), 미래(×) 소망표현 서술어: 과거(○), 미래(×)

2.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의 특징

중국어의 문장은 구조에 따라 단문과 복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복문은 두 개 이상의 문장 구조(두 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⁸⁾)를 가지며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이 되면 구조 측면에 이 두 문장이 같은 층위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어에서 내포문을 지닌 문장은 복문이 아니고 단문이다.⁹⁾ 張靜(1987)은 중국어에서 내포문을 지닌 문장은 단문이며 이는 두 말 할 필요 없이 거의 정설이 되었다고 하였다(秦礼君, 2013:80재인용). 내포문이란 학자들이 이른 시기에 제시한 문법 용어이며, 아주 중요한 문법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등 많은 언어에 존재한다. 각 언어들의 내포문에 대한 연구가 다르며, 중국어에서는 1957년 이후에 학자들이 내포문의 본질은 주술구(主謂短語)¹⁰⁾가 문장성분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밝혀냈다.¹¹⁾ 이에 한국어 내포절에 해당하는 중국어 문법 현상은 주술구임을

8) 범칭(泛称)성 주어가 생략된 서술어만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9) 중국어의 단문과 복문의 범위는 陳亞川·鄭懿德(2000: 88-91), 秦礼君(2013: 79-80), 王力(2015: 35-67), 傅曉莉(2021: 113-124) 등 연구 참고.

10) 중국어 문장 구성의 요소를 黃伯榮·廖序東(2017: 4)에서는 語素(형태소), 詞(단어), 短語(구), 句子(문장)으로 나누었다. 중국어의 短語(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일정한 결합 방식에 의해서 구성되고 문장이 되기도 하고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되기도 하는 문법 단위이다(황려명·박덕유, 2019: 890). 중국의 주술구(主謂短語)는 ‘주어+서술어’의 구조로 문장이 되기도 하고 문장 안에서 어떤 성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유현경(2015: 69)에서는 한국어의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의 구성단위라고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주술구와 한국어의 절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개념어임을 알 수 있다. 편리하게 대조하기 위해 이하 본고에서 주술구가 주어,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이라 칭하고, 주술주어절과 주술목적어절을 합쳐서 명사절이라 칭한다.

알 수 있다. 주술구는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수식어, 상황어, 보어의 역할을 하며 명사의 기능에 해당한다(黃伯榮·廖序東, 2017: 52; 康健, 2003: 97-102). 주술구는 문장 안에서 해당되는 문장성분에 따라 주술주어절, 주술빈어(賓語 목적어)절, 주술술어절, 주술정어(定語 수식어)절, 주술상황어(狀語 부사어)절, 주술보어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사절이 주어와 목적어의 구실을 하는 경우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주술주어절과 주술목적어절을 논의할 것이다.

1) 모문 서술어 특징

주술주어절은 주술구가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주어 성분의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하는 주술구는 흔히 판단적인 문장, 설명적인 문장, 묘사적인 문장에서 나타나고 모문(母文)의 서술어가 대부분은 판단(‘是 이다’)이나 설명(‘說明 설명하다, 表明 표명하다, 意味 의미하다’)적인 동사이거나 혹은 형용사인 경우가 많으며, 능원동사¹¹⁾(‘能, 會, 可以 할 수 있다’), 사역동사(‘使, 讓, 令, 指使, 使喚 등 사동’), 존현동사(‘有 있다’, ‘沒有 없다’)인 경우도 있고, 동작 동사인 경우는 적다(王宗聯, 1993: 66; 康健, 2003: 97-98; 文有美, 2014: 147; 張昕·姜紫涵, 2015: 84-87). 중국어 주술구가 주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 유형은 다음 <표 6>과 같다.

11) 중국어 내포문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丁聲樹 외(2009: 36), 莫偉(2011: 277-278), 秦禮君(2013: 79-83) 등 연구 참고.

12) 중국어의 능원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 놓여서 본용언의 의미를 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다.

〈표 6〉 주술주어절과 공기하는 모문 서술어 유형

是자문	是 이다
묘사적인 형용사	好 좋다, 好看 예쁘다, 坏 나쁘다
설명적인 동사	說明 설명하다, 表明 표명하다, 意味 의미하다
능원 동사	能, 會, 可以 할 수 있다
사역 동사	使, 讓, 令, 指使, 使喚 등 사동
존형 동사	有 있다, 沒有 없다

(7) 가. (我)說謊~~是~~我的錯.

거짓말을 한 것은 내 잘못 **이다**.

나. 他流淚~~表明~~他知道自己錯了.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다. 你穿這件衣服(的樣子)真**好看**.

네가 이 옷을 입은 모습이 참 **예쁘다**.

예문 (7가)는 주술구 ‘(我)說謊’로 모문의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 주술구의 주어 ‘我’는 생략되고, ‘說謊’은 동사구로 주술구의 서술어에 해당된다. ‘是’는 판단동사인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전체 문장은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문장이다. 예문 (7나)의 경우 주술구 ‘他流淚’로 모문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他’는 주술구의 주어라 되고, ‘流淚’는 주술구의 서술어가 된다. ‘表明’은 설명적인 동사인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전체 문장은 그가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예문 (7다)는 주술구 ‘你穿這件衣服’로 모문의 주어의 역할을 한다. 모문의 서술어 ‘好看’은 형용사이며 ‘당신이 이 옷을 입은 상태’를 묘사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7다)에서 중국어 주술주어절의 경우 ‘...的樣子’를 생략하면 더 자연스러운 반면에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은 ‘-은 모습’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문 (7다)에

서 중국어 주술주어절에 대응되는 한국어 내포절은 명사절이 아니고 관형절이다.

이렇듯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문장이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명사절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학습자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 네가 이 옷을 입기가 참 예쁘다.’와 같은 비문을 만들기가 쉽다.

(8) 가. (人們)打疫苗能預防新冠病毒。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나. 這次獲獎使我更加自信。

이번에 상을 받아 나는 더 자신 있게 되었다.

다. 他做事有原則。

그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

예문 (8가)에서 주술구 ‘(人們)打疫苗’는 모문의 주어 역할을 한다. ‘能’은 능원동사인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문장 전체는 백신을 맞는 그 일에 대한 설명이다. 예문 (8나)의 경우 ‘獲獎’도 모문의 주어의 역할을 한다. 주술구의 주어 ‘我’가 생략되고, ‘獲’는 주술구의 서술어가 된다. ‘使’는 사역동사인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마찬가지로 예문 (8다)에서 주술구 ‘他做事’는 모문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존현동사인 ‘有’는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다음으로 주술목적어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주술목적어절은 주술구가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주술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 모문의 서술어 동사는 항상 감각, 인지 혹은 심리 동사다(文有美, 2014: 147). 예를 들면, ‘知道 알다, 記得 기억하다, 感覺 느끼다, 想到 생각하다, 忘記 잊다, 相信 믿다, 希

望 바라다, 祝願 기원하다, 喜歡 좋아하다, 討厭 싫어하다, 愛 사랑하다, 恨 미워하다, 害怕 무서워하다, 听見 듣다, 看 보다, 說 말하다' 등 이런 동사들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주술구를 연결함으로써 모문 주어의 감각, 인지 혹은 심리 상태를 나타내거나 목적어 동사가 어떠한지를 묘사한다(康健, 2003: 97-98). 요구를 나타내는 어휘('勸告 권하다, 建議 건의하다, 強迫 강요하다' 등), 발견 결과를 나타내는 어휘('發現 발견하다, 指出 지적하다, 指責 책망하다' 등)도 허용된다(許巨成, 1993: 49-53). 그 외에 설명적인 어휘('意味 의미하다, 表明 표명하다, 說明 설명하다' 등)도 허용된다. 중국어 주술구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 유형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주술목적어절과 공기하는 모문 서술어 유형

인지 동사	知道 알다, 記得 기억하다, 感覺 느끼다, 想到 생각하다, 忘記 잊다, 相信 믿다
감각 동사	听見 듣다, 看 보다, 說 말하다
심리 동사	愛 사랑하다, 恨 미워하다, 害怕 무서워하다, 討厭 싫어하다
소망 동사	希望 바라다, 祝願 기원하다, 期待 기대하다
요구 동사	勸告 권하다, 建議 건의하다, 強迫 강요하다
발견 동사	發現 발견하다, 指出 지적하다, 指責 책망하다
설명 동사	意味 의미하다, 表明 표명하다, 說明 설명하다

(9) 가. 我相信你是個好人。

나는 네가 좋은 사람임을 믿는다.

나. 我期待我們還能再相見。

나는 우리가 또 만나기를 기대한다.

다. 我討厭弟弟撒謊。

나는 동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 我們清楚地看到樹叢再次夏活了。

우리는 숲이 다시 살아났음을 똑똑히 보았다.

마. 這意味着科學技術發揮了決定性的作用。

이는 과학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바. 他指責我遲到了。

그는 내가 지각한 것을 책망했다.

예문 (9가)에서 ‘你是個好人’은 주술구로 모문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你’는 주술구의 주어가 되고, ‘是’는 주술구의 서술어가 되며, ‘好人’은 주술구의 목적어가 된다. ‘相信’은 감지 동사인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전체 문장은 모문의 주어가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라는 감지를 표현한다. 예문 (9나)에서 ‘我們還能再相見’은 주술구로 모문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我們’은 주술구의 주어가 되고, ‘相見’은 주술구의 서술어가 된다. ‘期待’는 기원 동사인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전체 문장은 모문의 주어가 상대방과 또 만나고 싶다는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예문 (9다)에서 ‘弟弟撒謊’는 주술구로 모문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討厭’는 모문의 서술어로서 뒤에 나오는 주술구와 연결하여 모문의 주어의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예문 (라, 마, 바)에서는 ‘看到, 意味, 指責’가 모문의 서술어가 되고 어떤 것을 보거나 설명하거나 행위를 책망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 시상적 특징

중국어에는 시상적 어미가 없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시제 부사나 시상 조사¹³⁾ ‘將要, 馬上, 就 등(미래)’, ‘∅, 着, 正在 등(현재)’, ‘過, 了 등

13) 중국어의 시상 조사로 ‘了, 着, 過, 來着’가 있다(何芳梅, 1999: 25).

(과거)'가 존재한다. 주술구가 주어의 기능을 할 때 그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정태화(靜態化)’이다(王宗聯, 1993: 66). 이는 주술주어절의 모문 서술어는 대부분 ‘是’자문이나, 사역동사, 형용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태적인 성향이 주술구에 영향을 미쳐서 과거 시상 조사 ‘了¹⁴⁾, 着, 過’를 수반할 수 없게 된다(文有美, 2014: 155). 같은 원인으로 미래 시제 부사 ‘將要, 快要’를 수반할 수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0) 가. (運動, *運動了, *將要運動)對身体**好**.

운동은 건강에 **좋다**.

나. (說謊, ?說謊了, *將要說謊)**是**我的錯。

(거짓말을 한 것은) 내 잘못 **이다**.

다. (他流淚, ?他流淚了, *他將要流淚)**表明**他知道自己錯了。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라. (你穿這件衣服, *你穿這件衣服了, *你將要穿這件衣服)(的樣子)**真好看**。

(네가 이 옷을 입은 모습이) 참 **예쁘다**.

마. (注射疫苗, *注射疫苗了, *將要注射疫苗)**能**預防新冠病毒。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바. (這次獲獎, *這次獲獎了, *這次將要獲獎)**使**我更加自信。

이번에 상을 받아 나는 더 자신 있게 **되었다**.

사. (他做事, *他做事了, *他將要做事)**有**原則。

그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

14) 오직 ‘了’만 첨가할 수 있을 뿐, 아주 제한적인 경우로 중국어 주술주어문의 예문 1,000개 중에서 ‘了’를 첨가한 논문은 9개뿐이다(文有美, 2013: 96).

예문(10)을 보면, 모든 예문은 미래 시제 부사가 올 수 없다. 예문(10나, 다)는 ‘了’가 올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않다. 다른 예문은 ‘了’가 오면 비문이 된다.

다음으로 주술구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사상적 제약을 살펴 보겠다. 주술구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문장 안에 ‘了, 着, 過’가 올 수 있다(王華, 2007: 63). 주술목적어절의 모문 서술어는 대부분 인지 동사나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주술구의 정태성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1) 가. 我忘記(要吃藥, 吃過藥了, *將要吃藥)。

내가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 먹었다는 것)을 잊었다.

나. 他說(正在下雨, 下過雨了, 將要下雨)。

그는 (비가 온다고, 비가 왔다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 我討厭(弟弟撒謊, *撒謊了, *將要撒謊)。

나는 동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예문 (11)을 보면, 모문 서술어가 이끄는 문장 의미에 따라 허용되는 시제 부사나 시상 조사가 달라진다. (11가)는 이미 발생한 일을 잊어버린 것을 표현할 때에 과거 시제가 쓰이며,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할 때에도 현재 시제가 허용되는 반면에,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일에 ‘잊다’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11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사상적 제약은 없으며, (11다)는 나는 ‘동생이 거짓말을 한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III.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 대조

한·중 명사절의 대조는 구성 방식과 통사적 제약을 중심으로 논의 하겠다. 그 이유는 학습자로 하여금 명사절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1.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 구성 방식의 대조

한국어 ‘-(으)ㄴ’과 ‘-기’ 명사절은 한 문장이 명사절의 형식으로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더 큰 문장으로 만들어진다. 하나의 문장을 명사절로 만들 때에는 서술어에 ‘-(으)ㄴ, -기’와 같은 어미를 붙여서 만든다(국립국어원, 2014: 158). 고영근·구본관(2011: 499)에서는 명사절은 ‘-음’, ‘-기’ 등의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는 명사화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며, 이익섭(2017: 346)에서는 명사절은 문장의 종결어미를 명사형 어미 ‘-기’나 ‘음/-ㄴ’으로 바꿈으로써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이때, 명사절은 문장 속에서 명사와 같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사어’ 등의 구실을 한다(박덕유, 2012: 191). 본고에서는 명사절이 주어와 목적어의 구실을 하는 경우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대응되는 중국어 주술주어절과 주술목적어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측면에서 대조 분석을 하겠다.¹⁵⁾

1) 한국어 ‘-기’에 의한 명사절과 대응되는 중국어 명사절

예문을 통해서 한국어 ‘-기’ 명사절과 대응되는 중국어 주술주어절,

15) 명사절이 보어, 서술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는 경우는 차후 연구에서 논의하겠다.

주술목적어절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조 분석을 하겠다.

(12) 가. S₁.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다. + S₂. 나는 (그것이) 싫다.

听媽媽(的)嘮叨 + 我討厭(那个)

S₀. 나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가 싫다.

주어1 주어2 서술어

我 討厭 听媽媽(的)嘮叨.

주어 서술어 목적어

나. S₁. 인터넷 안 쓰는 사람을 찾는다. + S₂. (그것은) 어렵다.

找到不上网的人 (那个)難

S₀. 인터넷 안 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주어 서술어

很難 找到 不上网的人.

부사어 서술어 목적어

다. S₁. 나는 이번 시험을 통과한다. + S₂. 나는 (그것을) 빈다.

我通過這次考試。 + 我祈禱(那个)

S₀. 나는 이번 시험을 통과하기를 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我 祈禱 (通過這次考試).

주어 서술어 목적어

예문(12)에서, 한국어 ‘-기’에 의한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는 내포문에 종결어미가 탈락되고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명사절이 만들어지고 뒤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모문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절 안은문장을 만드는 반면에, 중국어는 내포문의 별다른 변화 없이, 즉 주술구는 그대로 모문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술구 안은문장이 만들어진다. 즉 한국어는 명사절 ‘-기’에 의한 내포문을 만들 때 명사형 어미 ‘-기’와 격조사가 필

요한 반면에 고립어인 중국어는 어미와 격조사가 없기 때문에 내포문 즉 주술구가 그대로 모문에 들어간다. 또한, 한국어 문장의 어순과 중국어 문장의 어순¹⁶⁾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은 문장 안에서의 위치도 다르다. 주어 기능을 할 때 한국어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은 모두 문장 맨 앞에 위치하는 반면, 목적어의 기능을 할 때 한국어 명사절은 서술어 앞에 위치하며 중국어 주술목적어절은 서술어 뒤에 위치한다.

예문 (12가)를 보면, 한국어 명사절은 주어 자리에 있는데 대응되는 중국어 동사구는 목적어 자리에 있다. 이는 모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지 동사인지에 따라 다르다. 모문의 서술어가 ‘討厭(싫다, 싫어하다)’¹⁷⁾ 같은 심리동사일 때 동사구는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또한, ‘-기’ 명사절이 ‘쉽다(容易)’, ‘어렵다(難)’, 개연성 등 서술어와 결합할 때는 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한 번만 나타난 중국어 단문과 대응된다. ‘쉽다’, ‘어렵다’, ‘분명하다’ 등의 어휘가 한국어에서 형용사로만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형용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부사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문(12)처럼, 한국어 모문의 서술어가 형용사 ‘어렵다(難)’로 표현되지만 중국어에서는 ‘難(어렵게)’로 부사어에 해당한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문장 구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개연성 서술어를 예로 들면,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 ‘着急的

16) 한국어 어순: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S + O + V

중국어 어순: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S + V + O

17) 한국어에서 형용사인 ‘싫다’, ‘좋다’와 동사인 ‘싫어하다’, ‘좋아하다’는 모두 ‘討厭’, ‘喜歡’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중국어에서 ‘討厭’, ‘喜歡’는 동사의 성질만 가진다.

話很可能(부사어)失誤(서술어)'도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난 단문이다. 이런 양국의 문장 구조적 대응 불일치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를 발생시킨다.

2) 한국어 ‘-(으)ㄴ’에 의한 명사절과 대응되는 중국어 명사절

다음에 예문을 통해서 한국어 ‘-(으)ㄴ’ 명사절과 대응되는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조 분석을 하겠다.

(13) 가. S₁. 쉽지 않은 일이다. + S₂. (그것이) 분명하다.

不是件容易的事。 (那个)确实。

S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주어 서술어

确实 不是件容易的事。

부사어 서술어

나. S₁. 숲이 다시 살아났다. + S₂.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樹叢再次复活了。 我們清楚地看到。

S₀. 우리는 (숲이 다시 살아났음)을 똑똑히 보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我們 清楚地看到 樹叢再次复活了。

주어 서술어 목적어

예문 (13)을 보면, 한국어 ‘-(으)ㄴ’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의 구성 방식도 다르다. 한국어는 내포문에 종결어미가 탈락되고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명사절이 되고 뒤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붙여서 모문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명사절 내포문을 만드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내포문의 별다른 변화 없이, 즉 주술구가 그대로 모문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술구 안은 문장이 만들

어진다. 예문 (13가)는 예문 (12나)처럼 모문 서술어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등 어휘인 경우에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 ‘確實不是件容易的事’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난 단문이다. 이런 대응 불일치 때문에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오류가 발생한다.

2. 한국어와 중국어 명사절의 통사적 특징 대조

한국어 ‘-(으)ㄴ’, ‘-기’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의 통사적 특징 대조에서는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의 제약, 시상법의 제약 등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한·중 명사절의 모문 서술어 유형에 대한 대조

먼저,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의 유형을 대조하겠다. 앞의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한국어 ‘-(으)ㄴ’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주로 판단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어휘(‘분명하다, 확실하다, 사실하다, 확인하다’ 등), 발견 결과를 나타내는 어휘(‘밝혀지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등), 상태를 나타내는 ‘-이다’류 형용사(‘사실이다, 유감이다’ 등)이며, ‘-기’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쉽다, 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좋다, 싫다’ 등), 개연성을 나타내는 어휘(‘쉽다, 일쑤이다, 십상이다, 보통이다’ 등)가 있다. 반면에 중국어 주술구와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대부분 주어에 대한 묘사적인 형용사(‘好 좋다, 簡單 간단하다, 對 맞다’ 등) 혹은 설명적인 동사(‘表明 표명하다, 表示 표시하다, 說明 설명하다, 意味 의미하다’ 등), 능원동사(‘能, 會, 可以

할 수 있다'), 사역동사('使, 讓, 令, 指使, 使喚 등 사동'), 존현동사('有 있다, 沒有 없다')인 경우나 '是 이다'자문이 많으며, 동작 동사인 경우는 적다. 이에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할 때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에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4) 가. 그가 면접에 통과했음이 사실이다.

他通過了面試是事實。

나. 참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

確實不是件容易的事。

다. 그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他說謊被揭穿。

라. 학교에 가기 싫다.

討厭去學校。

(15) 가. 成爲富人是我的目標。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 晚上走夜路太嚇人。

밤에 산길을 걷기가 너무 무섭다.

다. 注册了通用网站意味着100%的機會。

『文匯報(2005.08.31.)』(왕레이한, 2018:37 재인용)

통용 사이트를 등록하였음은 100%의 기회를 의미하고 있다.

라. 注射疫苗能預防新冠病毒。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마. 這次獲獎使我更加自信。

이 번에 상을 받아 나는 더 자신 있게 되었다.

바. 他做事有原則。

그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

예문 (14)는 한국어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절 안은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이고, 예문 (15)은 중국어 주술구가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술주어절 안은문장과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이다. 그 중에서 (14가, 15가)의 ‘-이다’류 서술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명사절은 중국어 ‘是(이다)’자문과 대응된다. (15나, 다)의 묘사적인 형용사와 설명적인 동사와 결합하는 중국어 주술주어절은 한국어 명사절과 대응된다. 반면에 예문 (14나)는 화제에 대해 판단하는 모문 서술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명사절 안은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난 단문이며, 이때 형용사 ‘분명하다’는 중국어의 부사어 ‘確實, 確定’으로 번역된다. 예문 (14다)는 화제를 발견하는 모문 서술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명사절 안은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은 ‘被’자문(피동문)이다. 예문 (14라)는 한국어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에서는 주술구가 주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구는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능원동사, 사역동사, 존현동사를 사용하는 중국어 주술주어문(15라, 마, 바)에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은 내포문이 아니라 접속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할 때 결합하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문 서술어의 차이로 인해, 양국 언어의 문장 간의 대응 불일치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한국어 ‘-(으)ㄴ’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설명하는 어휘(‘의미하다, 뜻하다’ 등), 발견과정을 나타내는 어휘(‘밝히다, 발견하다, 지적하다’ 등), 인지나 감각을 나타내는 어휘(‘알다, 인식하다, 깨닫다, 보다’ 등), 전달하는 어휘(‘말하다, 알리다, 주장하다, 강조하다’ 등)이다.

‘-기’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소망을 나타내는 어휘(‘바라다, 원하다, 기대하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좋아하다, 싫어하다, 두려워하다’ 등), 요구를 나타내는 어휘(‘권하다, 요구하다’ 등),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어휘(‘시작하다, 포기하다’ 등)이다. 반면에 중국어 주술구와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대부분 감각이나 심리 활동을 표현하는 동사이며, ‘愛 사랑하다, 恨 미워하다, 害怕 무서워하다, 說 말하다, 想 생각하다, 看 보다, 听 듣다, 覺得 느끼다, 以爲 여기다, 記得 기억하다, 忘記 잊다, 知道 알다, 相信 믿다, 認識 인식하다, 希望 희망하다, 贊成 찬성하다, 反對 반대하다, 同意 동의하다’, 설명적인 어휘(‘意味 의미하다, 表明 표명하다, 說明 설명하다’ 등) 요구를 나타내는 어휘(‘勸告 권하다, 建議 건의하다’, 強迫 강요하다’ 등), 발견 결과를 나타내는 어휘(‘發現 발견하다, 指出 지적하다, 指責 책망하다’ 등)과 같다. 한국어 모문 서술어의 유형에 비해 중국어에서는 시작과 종지를 나타내는 어휘(‘開始 시작하다’ 등)가 허용되지 않다. 그 이외에 명사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에서 사용하는 모문 서술어는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6) 가. 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我**渴望**走進大學的校門。

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음을 **느낄 수 있다.**

我能**感覺**到有人幫了我。

다. 그는 아내가 아이를 많이 낳기를 **강요했다.**

他**強迫**妻子多生孩子。

라. 그는 내가 지각했음을 **책망했다.**

他**指責**我遲到了。

마. 이는 과학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這意味着科學技術發揮了決定性的作用。

바. 비가 오기 시작했다.

開始下雨了。

예문 (16가~마)처럼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한국어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목적어절은 대응 일치할 뿐만 아니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가 비슷하다. 반면에 예문 (16바)처럼 한국어 명사절 안은문장과 대응 되는 중국어 문장에서는 주술구가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구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2) 한·중 명사절의 시상적 제약에 대한 대조

앞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어 명사절은 주술구의 기능이 시상적 제약에 영향을 끼치는 반면에, 한국어 명사절은 명사절 어미 ‘-(으)고’와 ‘-기’가 가진 의미 특성과 모문 서술어가 문장의 시상적 제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명사절에서 받는 시상적 제약을 위주로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명사절의 시상적 제약과 대조해 살펴보겠다.

(17) 가. 그가 거짓말을 (함, 했음, * 하겠음)이 드러났다.

他被發現(在說謊, 說謊了, * 將要說謊)。

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음, 도와주었음, * 도와주겠음)을 느낄 수 있다.

송창선(1990:221)

我能感到有人(在幫助我, 幫助了我, * 將要幫助我)。

다. 그는 죄행에 가담하지 (않음, 않았음, 않겠음)을 강조했다.

송창선(1990:221)

他強調自己(沒參與犯罪, 沒參與過犯罪, 以後將不會參與犯罪)。

라. 밤에 산길을 (걷기, * 걸었기, * 걸겠기)가 무섭다.

晚上(走山路, * 走山路了, * 將要走山路)很可怕。

마. 철수가 밥을(먹기, 먹었기, * 먹겠기)가 쉽다. 송창선(1990:221)

哲洙可能(在吃飯, 已經吃飯了, 快要吃飯了)。

바. 엄마가 아들이 무사히(돌아오기, 돌아왔기, * 돌아오겠기)를 바란다.

媽媽期待兒子(平安回來, * 平安回來了, * 將要平安回來)。

사. 비가 (오기, * 왔기, * 오겠기) 시작했다.

開始(下雨, 下雨了, * 將要下雨)。

예문 (17가, 나, 다)에서 보듯이 ‘-(으)ㄴ’에 의한 명사절은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와의 시상적 제약의 대응이 일치하는 편이다. 그러나 예문 (17마)에서 보듯이 ‘-기’에 의한 명사절은 중국어 문장과와의 시상적 제약의 대응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개연성의 의미를 표현하는 한국어 명사절은 미래 시제 어미 ‘-겠-’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은 주술구 안은문장이 아니지만 ‘-겠-’이 허용된다. 또한 예문 (17바)에서 ‘꼭 이루어지리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한국어 명사절 은 과거 시제 어미 ‘-았/었/였-’이 허용되는 반면, 그와 대응되는 중국어 주술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문 (17사)에서 시종의 의미를 표현하는 한국어 명사절은 과거 시제 어미 ‘-았/었/였-’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에서는 과거시제가 허용된다. 이에 학습자가 문장을 만들어낼 때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도착하겠기가 쉽다.’, ‘비가 왔기 시작했다.’와 같은 비문을 산출하기 쉽다.

IV.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한국어 ‘-(으)ㄴ’, ‘-기’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을 살펴보고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제약을 대조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에 대한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모두 설명적인 어휘, ‘-이다(是)’류 어휘인 모문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다. 둘째,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모두 감각, 인지 혹은 심리 동사나 설명형, 발견형, 요구형인 모문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다.

한편,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에 대한 차이점도 많은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 즉, 한국어는 내포문에 종결어미가 탈락되고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명사절이 되며 뒤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붙여 모문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절 안은문장을 만든다. 반면에, 교착어인 한국어와는 달리 고립어인 중국어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어미에 의지하지 않고 내포문의 별다른 변화 없이, 즉 주술구가 그대로 모문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술구 안은문장을 만든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명사절의 표지 ‘-(으)ㄴ’과 ‘-기’가 존재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명사절 표지가 없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은 대응 불일치한 경우가 있다. 한국어 명사절 내포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은 명사절 내포문 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한 번만 나타난 단문일 수 있다. 넷째,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공기하는 한국어 모문 서술어의 유형과 중국어 모문 서술어의 유형에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어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의 유형에 따라 공기하는 모문 서술어가 달라지는 반면, 중국어

주술구는 명사형 어미가 없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에 따른 서술어 제약이 없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명사절을 표현할 때 ‘-(으)ㄴ’과 ‘-기’를 구별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한국어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ㄴ’과 ‘-기’의 의미 특성과 모문 서술어에 따라 시상적 제약을 받는 반면에, 중국어 명사절은 주술구가 수행하는 기능과 모문 서술어가 이끄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 시상적 제약을 받는다. 특히 개연성의 의미를 표현하는 한국어 ‘-기’에 의한 명사절에 미래 시제 어미 ‘-겠-’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에서는 허용된다. 시중의 의미를 표현하는 한국어 명사절에 과거 시제 어미 ‘-았/었/였-’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에서는 과거시제가 허용된다. 이에 학습자가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비문을 만들기 쉽다.

본고는 한국어 ‘-(으)ㄴ’, ‘-기’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을 그 구성 방식과 통사적 제약 측면에서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으)ㄴ’, ‘-기’ 명사절 교수·학습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1.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권재일, 「현대국어의 {기} - 명사화 내포문 연구」, 『한글』 제171집, 한글학회, 1981, pp.45-64.
- _____, 「현대국어의 {음} - 명사화 내포문 연구」, 『韓國語文論集』 제2집, 한사대 한국어문연구소, 1982, pp.33-47.
- 기무라 나오키, 「한국어와 일본어의 내포문 대조 연구」, 『비교한국학』 제23집, 국제비교 한국학회, 2015, pp.331-359.
- 기준성,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 -기}의 표현유형과 의미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일환·박종원, 「국어 어미의 분포에 대한 계량적 연구」, 『국어학』 제42집, 국어학회, 2003, pp.141-175.
- 김혜원·김은호, 「한국어 ‘-(으)ㄴ’, ‘-기’ 명사절 내포문의 실현과학문 목적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 연구」, 『언어와 문화』 제15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8, pp.57-96.
- 동 연, 「한국어 내포문의 중국어 대응문장 고찰」, 『이화어문논집』 제38집, 이화어문학회, 2016, pp.109-132.
- 동 초, 「한국어 명사절 내포문의 중국어 대응 관계 연구 - 한·중 병렬 말뭉치를 바탕으로 -」, 『中國學報』 제97집, 한국중국학회, 2021, pp.105-131.
- 박덕유, 『학교 문법론의 이해』, 역락, 2012.
- 송창선, 「명사화소 ‘-(으)ㄴ, -기’의 통사 특성」, 『국어교육연구』 제22집, 국어교육학회, 1990, pp.211-229.
- 왕레이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우형식, 「명사화소 ‘-(으)ㄴ’, ‘-기’의 분포와 의미기능」, 『말』 제12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87, pp.119-160.
- 유현경, 「국어 문법 기술에 있어서 절의 문제」, <어문론총> 63,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pp.63-87.
- _____, 「한국어 명사절의 범위에 대한 연구」, 『한글』 제79집, 한글학회, 2018, pp.37-66.
-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정주리, 「‘음’, ‘기’의 의미와 제약」, 『한국어학』 제30집, 한국어학회, 2006, pp.291-318.

- 조기현, 「영어와 한국어의 비정형 명사절 대조분석」, 『현대영어영문』 제61집,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17, pp.359-378.
- 허용·김선정, 『대조언어학』, 소통, 2019.
- 홍중선,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 제8집, 한국언어학회, 1983, pp.241-272.
- 황려명·박덕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체언+용언’형 언어 대응 양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9(4),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pp.885-905.
- 陳亞川·鄭懿德, 『呂叔湘著〈漢語語法分析問題〉助讀』, 語文出版社, 2000.
- 丁聲樹 외,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2009.
- 傅曉莉, 「漢語複句學說的源流」, 『華北電力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2집, 華北電力大學, 2021, pp.113-124.
- 何芳梅, 「關於漢語“時態助詞”的几个問題」, 『閱讀與寫作』 제10집, 广西語言文學學會, 1999, pp.25-26.
- 黃伯榮·廖序東,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2017.
- 康 健, 「談談主謂短語的功能類別」, 『四川師範學院院報』 제2집, 四川師範學院, 2003, pp.97-102.
- 莫 偉, 「日漢包孕句從句的陳述方式比較研究」, 『佳木斯教育學院院報』 제5집, 佳木斯教育學院, 2011, pp.277-278.
- 秦祚君, 「漢日語包孕句的研究現狀比較」, 『外國語文』 제29집, 重慶市教育委員會, 2013, pp.79-83.
- 王 華, 『現代漢語小句賓語句整合特征研究』, 北京語言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 王 力, 『中國語法理論』, 中華書局, 2015.
- 王宗聯, 「論主謂短語作主語和謂語」, 『四川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4집, 四川師範大學, 1993, pp.66-72.
- 文有美, 「現代漢語主語從句德句法語義研究」, 博士學位論文, 2013.
- , 「현대중국어 주어절과 목적어절 특징 비교」, 『중국어문학논집』 제84집, 중국어문학연구학회, 2014, pp.141-162.
- , 「현대중국어 주어절의 한국어 대응 양상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101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6, pp.115-135.
- 許巨成, 「淺論主謂短語句做賓語句」, 『新疆教育學院學報(綜合版)』 제29집, 新疆教育學院, 1993, pp.49-53.
- 張昕·姜紫涵, 「主謂短語的句法成分及其語義關系」, 『寶雞文理學院(社會科學版)』 제166집, 寶雞文理學院, 2015, pp.84-87.

Abstract

A study on the contrast of Noun Clauses in Korean and Chinese

- Focusing on ‘-(으)ㄴ’ and ‘-기’ noun clause -

Liu, Jingyu · Youn, Hwa-young · Park, Deok-y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composition method and syntax rules of noun claus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 this paper, we set the research object first for the noun clause by ‘-(으)ㄴ’ and ‘-기’ which have difficulties using them, and investigated formats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and Chinese noun clause. In addition, contrastive analysis of composition method and syntactic constraints of noun claus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was performed. I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ntrast, it presented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formats and syntax rules of noun claus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 common, first when used as subject, they can all be used with the predicate verbs in main sentences of declarative forms and the ‘be’ forms. The second when used as object, they can all be used with the predicate verbs in main sentences with meanings of perception, awareness, demand, discovery. As a difference, first the noun clauses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are structurally different. Second, in Korean there are noun clause marks of ‘-(으)ㄴ’ and ‘-기’, but not in Chinese. Third, there are correspondenc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noun clauses in main sentences in Korean and in Chinese. Fourth, when the noun clause is used as subject, there are many differences of predicate verbs used in the Korean and those used in Chinese. Fifth, the tenses that can be used in Korean noun clauses are affected by the meaning characteristics of ‘-(으)ㄴ’, ‘-기’ and the verbs of main

sentences, while the tenses that can be used in Chinese noun clauses are affected by the components of the noun clauses in the sentences.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teaching & learning resources of Korean noun clause for Chinese learners.

Key Words : ‘-(으)ㄴ’ noun clause, ‘-기’ noun clause, composition method, syntactic constraints, contrastive analysis

劉景玉 - 제1저자

소속 : (중국) 집미대학교 한국어과 전임강사

전자우편 : qingxia2513@163.com

윤화영 - 제2저자

소속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겸임교수

전자우편 : 2bestmembers@naver.com

박덕유 - 교신저자

소속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deokyu@inha.ac.kr

이 논문은 2022년 05월 01일 투고되어
2022년 06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2년 06월 24일 게재 확정됨.